

1980 年 을 맞이 하면서

지금 이 時間이 바로 80年代의 시작입니다. 우선 前後方戰線에서 國土防衛에 專念하고 있는 國軍將兵에게 衷心으로 感謝를 드리며 이를 뒷받침하는 防衛産業一線에서 自主防衛達成을 爲해 獻身해온 會員社 全從業員의 勞苦을 衷心으로 致賀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새해도 民族雄飛의 보람찬 結實을 거두는 榮光의 한해가 되기를 祝願하는 바입니다.

지난 해를 돌이켜 보면, 우리는 일찌기 없었던 衝擊과 苦難을 이겨내야 하는 激動의 한해였습니다.

크게는 民族中興을 領導하신 朴正熙大統領의 逝去를 비롯해서 產油國의 油價引上이 물고온 經濟的 打擊, 급작스런 北傀軍事力의 激增의 波紋이 周邊情勢의 不安과 적게는 本誌 發刊人이시던 故朴勝稜會長의 不意의 他界等, 實로 愕愕과 悲痛의 連續된 1年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國家的 召命感에 透徹함으로써 失意를 딛고 일어섰으며, 그럴수록 우리는 忍耐와 順理로써 이 艱難을 克服하여 中興創業의 前進를 繼續해 왔습니다.

이제 大望과 보람에 찬 80年代를 맞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끊임없는 挑戰과 試鍊이 닥쳐올 것을 豫見할 때, 더욱이 다가올 國內外情勢의 새로운 局面을 直視할 때 우리에게는 아직도 새롭고 어려운 課業이 많이 남아 있어서, 今年에는 그 어느해 보다도 굳은 決意와 進取的 實踐力이 크게 促求되는 바입니다.

오늘날 國際情勢의 흐름은 날로 그 流動的 樣相이 深化되고 있으며, 이를 틈타 再侵의 機會를 노리는 北傀共產集團의 挑發策動이 갈수록 發惡의 濃度を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狀況아래서 우리 防衛産業人이 해야할 일과 밀고 나아가야할 길은 自明한 것입니다.

卽 우리는 北傀로 하여금 南侵野慾을 拋棄케 할 수 있는 充分한 戰力을 倍養하는데 있어서 말은바 課業을 차질없이 達成하는 한편 持續的인 高度成長과 國民生活安定을 指向하는 政府의 經濟施策에 積極呼應하면서 健實한



社會紀綱確立에 率先 獻身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現時局이 要求하는 絶對的 召命意識과 民族中興의 歷史的 使命感을 切感해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政府와 企業과 勤勞者가 渾然一體가 되어 創意와 熱誠을 遺憾없이 發揮함으로써 防產分野 全般에 걸친 能率의 極大化에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防產人 個個人은 優先 自己職務에 精銳化되어야 하며, 合理的인 經營管理를 통해서 그 成果를 조금도 浪費없이 곧바로 生産力에 結集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옛부터 이어온 百折不屈의 氣魄과 더불어 자가지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낸 지난날의 成功的 經驗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와같은 矜持를 발판삼고 오직 果敢하게 實踐하는 길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또 이길은 온겨례가 念願하는 祖國統一의 길로 이어지는 것이며, 現實的으로는 北德와의 對決에서 그들을 制壓하는 捷徑임에 틀림없습니다.

지난 1年동안 『國防과 技術』誌는 世界의 軍事科學과 兵器技術의 새로운 趨勢를 紹介하는데 最善을 다하느라 애써 왔지만 아직도 未洽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디 새해에는 보다 알차고 迅速한 媒介에 힘쓸것을 다짐하면서 그동안 本誌 發刊에 積極 協力해주신 執筆陣과 關係者 여러분에게 깊은 感謝를 드리고 앞으로도 變함없는 鞭撻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러분 家庭에 새해의 榮光과 幸運이 깃들기를 祈願합니다.

1980年 元旦

社 團 法 人 韓 國 防 衛 產 業 振 興 會

會 長

韓 慶 勳